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

-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서로의 신뢰가 최우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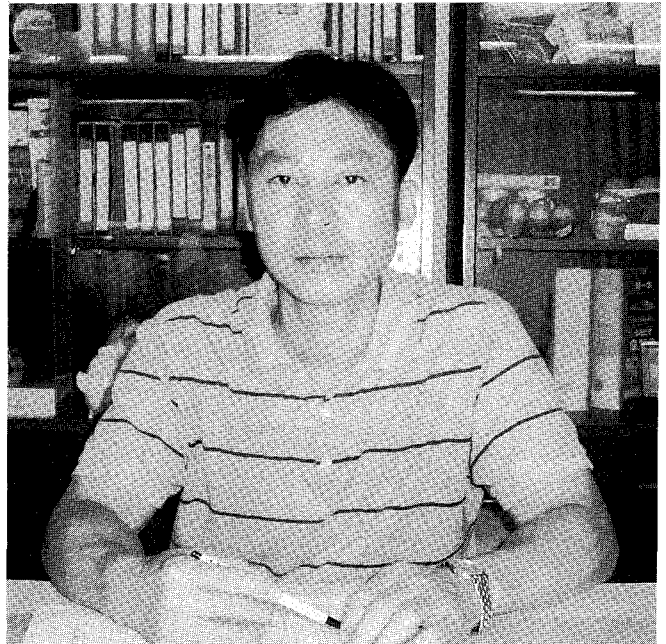
◇ 홍보 팀

채 란업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비 절감, 상품란 개발 등을 통해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난국을 극복해가는 젊은 양계경영인들이 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경기도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양계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아 경영일선에 선 젊은 양계인들로 다한영농조합법인(조합장 이만형)을 탄생시키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다한’은 급변하는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로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1999년 4월 첫모임을 갖고 영농조합법인 설립은 물론 사료의 공동구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출발하였다. 처음 9명으로 출발한 구성원들은 원가 절감 및 차후 법인구성시 계란상품의 균일화를 통한 유통의 다각화를 기하기 위해 전국 8개 사료회사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월 1,800여톤에 달하는 사료를 전량 S회사에서 구매하게 되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을 키워갔다. 이들은 같은해 10월 28일 창립 총회를 갖고 이만형 길샘농장 대표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한’의 뜻은 ‘모두다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생산과잉, 소비감소,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채란 양계산



▲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으로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만형 조합장



▲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을 다지고 있는 다한영농조합법인 가족들

업에 대해 서로가 최선을 다하면, 어려운 난국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다한’은 회원들의 결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차별화된 제품생산을 통해 채란업의 경쟁력 확보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한’의 조합원들은 당시 9개 농가에서 현재 11개 농가로 회원을 늘렸으며, 지역도 광주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경기, 충청권의 회원들까지 뜻을 같이하는 농가들을 가세시키며 역량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조합원들은 평균 7만수의 채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1개 조합원 농가에서 월 2,000톤의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한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양계인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법인체로 각각의 농장들이 시설과 규모면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료 공동구매, 질병공동대처, 계란 상품개발, 유통

의 다각화,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을 다지고 있다.

‘다한’은 생산자들에게 신선한 계란을 공급한다는 취지하에 벤처정신으로 부가가치란, 기능란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 생후 20주령에서 50주령사이에서 낳은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인 ‘2050’란을 출시하여 시장공략에 나섰다. 1999년 12월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산학협동협약을 맺어 면역항체계란인 IgY계란을 연구하였고, 2000년 한국화학연구소로부터 시험성적 결과를 받아 면역항체계란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2050계란, 행복예감 등의 기능란을 시중에 내놓고 있다.

특히, 다한영농조합법인은 사료 공동구매를 통해 타 농장들과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금은 조합의 운영 뿐만 아니라 농장의 방역 관리 등에 쓰여지는데 공

<다한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단>

- 회장 : 이만형
- 고문 : 이상수
- 감사 : 이수인
- 총무 : 정근수
- 유통 부문 : 김재은, 오치성
- 마케팅 부문 : 김재현
- 정보 부문 : 오기택, 손승기
김용재, 주철림

동질병 예방을 위해 지정수의사를 두어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최근에는 사료의 계약기간이 가까워오면서 그동안 2년간의 계약을 맺고 사료를 공급해온 업체를 포함한 타 사료업체를 대상으로 제3차 공개입찰을 하기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공개입찰은 국내 사료회사들

로부터 설명회를 듣고, 각 조합원들로부터 투표를 실시해 많은 표가 나온 회사를 선정하는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면서 전혀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

이들은 한달에 한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사양관리, 질병관리, 유통상황 등 서로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오치성, 주철림씨를 새 식구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활기가 넘치고 있는 11명의 다한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은 생산에서부터 연구, 개발 등 아이디어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전 조합원이 생산, 방역, 유통, 마케팅, 정보분야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면서 양계산업의 발전은 물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 기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동 광 공 업

대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